

“대선후보 내년쯤 부각...경제·외교·교육 역량 중요”

대통령 선거·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당내 인사 나올 것
호남벽 허물기 노력 계속...점차적으로 진정성 아시게 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 “당내 인사가 나올 것”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당의 인사가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또 “호남지역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당내 인물”을 강조했다. 그는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당에 입당하시라”고 말했다. 다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내년 선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면서 “가급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적절하고, 그러한 인물이 충분히 당 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 대표와 관련한 질문이 거듭 나오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인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한 질문에도 “외부의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후퇴하지 않을 변화와 혁신의 DNA를 당에 확실히 심겠다”며 “취임 100일도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직을 맡았다”면서 “대

한민국과 정치에 이처럼 제1야당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호남 민심 사로잡기”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에서 호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호남 사람들의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해소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펼치려고 생각한다”며 “과연 호남 주민들께서 국민의힘이 과연 진정성있게 대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무리 말해봐도 믿을 안 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자세로 호남을 접하느냐는 점차적으로 아시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 4인방 복당 문제는 “당이 완전히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하나를 묻자 사법부와 검찰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삼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만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면서 “야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폭 빠져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 내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금융계 인사 총출동 한국판 뉴딜 ‘동력 확보’ 문 대통령 “금융 뒷받침 필요...국민도 함께해 주시길”

뉴딜 1차 전략회의 주제
혁신기업 1000개 선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총출동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했다. 또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

기금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구원투수로 나선 금융권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국민 참여에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짚으면서 “금융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 요인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뉴딜금융활성화에 170조원 + α(알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5년간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민간 금융기관이 70조원을 투입해 뉴딜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On-lending-중개기관을 통

한 간접대출)에 1조원(산은) ▲ 뉴딜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출 공급에 69조원(산은-기업은행-수출입은행) ▲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에 30조원(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입된다.

정부가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기술을 갖춘 기업 1000개를 선정하는 ‘혁신기업 1000’ 선정 사업에서도 뉴딜 테마를 신설해 관련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 중 발표 예정인 ‘168 + α’개 기업 중에서도 일정 수준(60% 이상 등)을 뉴딜 관련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 대형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기관들도 뉴딜 금융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고위 인사들도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연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에 여권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협치’로 존재감 부각...재난지원금은 ‘선별’로 돌파

취임 후 첫 메시지 “정책 협치”
의사과업 유화적 기조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사진) 대표가 취임 후 ‘협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내 의견이 분분했던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중당 중진의원은 “첫 화두로 협치를 던진 것은 잘한 일”이라며 “여당이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여론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란 평가가 나온다. 당권을 쥐고 당내 여론을 정리해 가면서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자연스럽게 차별화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 취임 후 당정 기류가 선별 지급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이 의료계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의 ‘위점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대표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최근까지만 해도 파업 의사들에 대해 ‘자격 박탈’까지 운운했던 강경 기조를 보이다 유화적 기조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3일 “이 대표는 국민 불안을 없애는 것을 우선이라는 생각 아래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이 대표의 입기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전제로 6개월 남짓이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평소 자신의 신념이라고 밝힌 ‘선별 지급’으로 관철해가는 모습이다. 재난지원금 대신 ‘코로나 긴급지원’, ‘맞춤형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